

2018학년도 경북대학교 논술(AAT) 모의고사

인문계열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

[문제 1]

출제의도

[문제 1] 을 출제한 의도는 정보화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에 대한 이해를 질문하고자 출제된 것이며, 이 문제의 지문은 정보화 사회가 현대인들에게 권력을 감시하는 능력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 한편 다른 측면에서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화가 제공하는 편익에 주목한 나머지 스스로 자신이 거대한 감시권력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함.

- 일반적으로 정보화가 지닌 긍정과 부정의 측면을 많이 지적하고 논의하고 있으나 이 질문에서는 단순한 이분법적 비교가 아니라, 정보화의 긍정성 속에 부정성이 출발할 수 있다는 정보화 사회의 측면을 철학적, 인문학적으로 사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출제의도임.

문항해설

- 이 문항은 “정보화 사회에서의 개인과 권력”의 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두 가지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두 편의 글(제시문 (가)와 제시문 (다))을 읽고, 그 차이점을 찾아본 후, 그런 시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근거 혹은 원인을 제시문 (나)와 연관 지어 찾아보고자 하는 문항임.

-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은 정보화 사회의 성격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벤담의 패놉티콘에서 전자 시놉티콘까지”에서 정리한 내용이며, 이 부분은 전자감시사회와 패놉티콘은 정보화 사회를 다룬 사회과 교과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어서 고등학생에게 잘 알려져 있는 주제임. 이런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정보화 사회의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는 한병철의 글을 제시문(다)에서 제시함으로써 정보 사회 속에 아무 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시사회를 초래하는 원인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측정해보고자 하는 문항임.

채점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p>1-1. 【제시문 (다)에서 설명하는 원인을 제시문 (나)에서 찾기】 (3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나)에서 드러나 있는 많은 현상들 중 제시문 (다)가 말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함 ▶ 요구하는 정답 문장이 제시문 (나)에 주어져 있으므로 예시 답안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30
1-2	<p>1-2. 【제시문 (가)와 (다)에서 ‘주체’와 ‘권력’을 바라보는 상이한 관점 비교】 (3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정보화 사회가 현대인들에게 권력을 감시하는 능력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 한편 제시문 (다)에서 설명하듯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화가 제공하는 편익에 주목한 나머지 스스로 자신이 거대한 감시권력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한 상황이 존재함을 이해해야함. ▶ ‘주체’와 ‘자유’라는 단어를 이미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라고 제시했기 때문에 이 단어를 반드시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질문의 내용에서 ‘대중’과 ‘권력’이라는 용어를 제시했으므로 이 용어도 반드시 사용되어야 함. ▶ 위의 두 조건을 충족하는 답안은 예시 답안 참조. 	30

예시답안

문제 1-1 :

사람들은 감시되는 환경 속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얻는 혜택 때문에 그것이 초래하는 감시의 위험을 허용한다.

문제 1-2 :

(가)는 대중이 권력을 감시하는 주체적인 존재이고 (다)의 대중은 스스로 자유롭다는 착각 속에서 권력이 감시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기여하는 존재이다.

[문제 2]

출제의도

‘국어’와 ‘도덕’ 교과서의 내용을 접목시킨 통합교과형 문제로, 장자의 「제물론」, 정약용의 「수오재기」, 이상의 「거울」에서 표면적 의미를 넘어서는 함축적 의미를 정확히 읽어내고 성찰함으로써, 인간과 세계에 대하여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삶의 의미에 대한 통찰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문항해설

(가)는 장자의 「제물론」으로, 땅과 하늘의 소리에 취해 자신을 잊은 남곽자기의 모습을 통해 자타의 구분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합일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다. 장자는 자신의 아집에서 비롯되는 분별과 대립, 편견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하나임을 아는 것이 이상적인 삶이라고 보았으며, 세속적 가치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가 되는 몰아일체의 경지 속에서 진정한 정신적 자유를 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장자의 사상이 잘 드러나 있다. 따라서 밑줄 친 부분에서 자신을 잊는다는 것 즉 망아(忘我)의 상태란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연만물과 하나가 되는 몰아일체의 경지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정약용의 「수오재기」로, 작가의 큰형님이 자기 서재에 ‘수오재’라고 이름붙인 사연을 소개하면서 작가 자신이 귀양살이를 하는 상황 속에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작가는 천하 만물은 지킬 필요가 없지만 ‘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잃기 쉬우므로 잘 지켜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그간 눈앞의 현실적 이익과 명예에만 매달려 참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던 정황을 기술하고 있다. 즉 ‘현실적 자아’의 욕망에만 힘쓰느라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린 것을 깨닫고, 잃어버린 ‘본질적 자아’를 회복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따라서 밑줄 친 부분에서 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눈앞의 현실적 이익이나 명예에만 매달려 본질적 자아(참된 자아)를 잃어버린 상태를 말한다.

<보기>는 이상의 「거울」로, 현실적 자아(일상적 자아)와 본질적 자아(내면적 자아) 사이의 갈등, 즉 자의식의 분열을 드러낸 작품이다. ‘거울 밖의 나’는 현실적 자아이며, ‘거울 속의 나’는 본질적 자아로, 현실적 자아와 본질적 자아의 괴리 속에서 고뇌하는 인간상을 드러내고 있다. ‘거울 속의 나’는 본질적 자아라는 점에서 「수오재기」의 잃어버린 나와 대응된다.

채점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p>㉠과 ㉡을 각각 25점씩 채점한다.</p> <p>㉠에서 스스로를 잊은 상태와 관련하여 자신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자연만물과 하나가 된 경지라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25점) -‘자신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혹은 ‘자타의 구분에서 벗어나’ 등의 표현이 있으면 (12점) -‘자연(만물)과 하나가 된 경지’ 혹은 ‘몰아일체가 된 경지’라는 내용이 있으면 (13점)</p> <p>㉡에서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과 관련하여 눈앞의 현실적 이익과 명예를 추구하다가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렸다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25점) -‘눈앞의 현실적 이익과 명예를 추구하다가’ 혹은 ‘현실적 자아의 욕망에만 사로잡혀’ 등의 내용이 있으면 (12점) -‘본질적 자아(참된 자아, 내면적 자아)를 잃어버렸다’는 내용이 있으면 (13점) *문장 표현의 수준에 따라 점수를 가감할 수 있다.</p>	50
2-2	‘거울속의나’ 혹은 ‘거울 속의 나’만 정답으로 간주한다.	20

예시답안

- ㉠ : 스스로를 잊은 상태란 자신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자연(만물)과 하나가 된 경지 즉 몰아일체의 경지를 말한다.
 ㉡ : 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눈앞의 현실적 이익이나 명예에만 매달려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린 상태를 말한다.
- 거울속의나

[문제 3]

출제의도

이 문제는 현대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학 기술의 가치와 한계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정신과학의 한계도 함께 사유하도록 함으로써 학문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도록 하는 의도를 가지고 출제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정신과학과 비판이론의 관점에서 과학이 주장하는 객관적 지식이 사회적이고 역사적 배경을 가진 선입견을 가진 것이며, 객관적 지식만을 강조할 경우 변화를 거부하고 현상유지를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비판적으로 사유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적이고 역사적 배경을 과도하게 강조할 경우 전통과 권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며, 결국 지배이익을 은연중에 대변하는 보수적인 권위주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생각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의 태동과 연관된 계몽주의에 대한 대립적 태도를 비교하고 그 차이를 알도록 제시문을 제공하였다. 관련 주제는 과학적 지식의 특성에 대해서는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부터 과학의 가치중립성과 과학자의 책임문제를 다루고 과학 기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주제와 연관되어 다루어졌고, 계몽주의 및 비판적 이성과 연관된 논의는 근대 사상과 현대 사상을 다루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나오고 있다.

문항해설

이 문항은 과학이 주장하는 객관적 지식이 순수한 중립적 관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선입견을 가진 것이라는 사실과 객관적 지식의 탐구를 삶의 영역에 적용할 경우 경험적 관찰과 계량적 탐구를 위해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는 실증적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현상유지를 고수하는 이론이 될 수 있는 점을 비판적으로 사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문제이다. 또한 이와 연관하여 정신, 문화, 역사를 강조하는 정신과학 또는 인문학도 전통과 권위를 중시하는 태도를 고수할 경우 보수적인 권위주의의 형태를 띠 수 있다는 것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논리적 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어진 제시문에서 비판적 이성 보다는 이성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이성 및 과학을 강조하는 계몽주의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먼저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가)는 과학이 무엇인지를 계몽주의와의 연관성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서 고등학교 교과서 『생활과 윤리』에서 가져온 것이다. 제시문 (나)는 과학의 객관적 지식을 비판할 수 있는 논거로서 가다머의 『진리와 방법』에서 인용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모든 이해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의 객관적 지식이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전통과 권위를 배척하는 계몽주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제시되고 있다. 제시문 (다)는 하버마스의 『인식과 관심』에서 나오는 핵심적 사상을 정리한 것으로서 과학이 자연 및 인간 사회를 실증적으로 탐구함으로써 눈앞에 있는 것에만 의존하게 할 경우 변화를 거부하고 현상유지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할 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이해의 선입견을 강조할 경우 전통과 권위를 숭상함으로써 보수적이며 권위적인 형태를 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계몽주의의 비판적 이성을 옹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항 3-1은 제시문 (가)에서 기술된 과학의 “객관적 지식”을 제시문 (나)와 (다)의 관점에서 비판하도록 하는 문제이다. 사물에 대한 순수한 관찰로부터 객관적이며 중립적 지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과학은 이미 사회적이고 역사적 맥락과 연관된 선입견을 가진 것이며, 과학의 실증적 지식을 자연 및 사회 영역에까지 확대할 경우 변화를 거부하고 현상유지만 몰두하는 방식으로 삶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문항 3-2는 권위와 전통에 대한 계몽주의의 태도를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입장의 차이를 파악하도록 하는 문제이다. 제시문 (나)는 전통과 권위를 배척하기 위해 계몽주의가 선입견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이성의 역사성을 무시한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제시문 (다)는 전통과 권위를 선입견으로서 인정할 경우 지배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성의 비판능력을 강조하는 계몽주의를 옹호한다.

문항 3-3은 제시문 (나)와 (다)의 입장을 확인한 후 (다)의 입장에서 (나)를 비판하도록 하는 문제이다. (다)는 이성의 비판능력을 무시하고 이해의 선입견을 내세워 전통과 권위를 절대화할 경우 지배이익을 은연중에 대변하는 보수적 권위주의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에서 (나)의 입장이 가진 문제점을 비판할 수 있다.

채점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제시문 (가)의 “객관적 지식”을 제시문 (나)와 (다)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내용을 평가한다. 제시문 (나)의 비판과 (다)의 비판을 각각 제시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채점기준이 정해진다. - 제시문 (나)의 비판이 분명하고 충분히 기술되었을 경우 15점 (주요개념이 빠진 경우 2점씩 감점) - 제시문 (다)의 비판이 분명하고 충분히 기술되었을 경우 15점 (주요개념이 빠진 경우 2점씩 감점) - 논리적 연결 및 표현의 적합성 5점	35

3-2	<p>권위와 전통과 관련하여 계몽주의의 태도를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입장의 차이를 파악한 내용을 평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나)에서 계몽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고 충분히 기술되었을 경우 10점 (주요개념이 빠진 경우 2점씩 감점) - 제시문 (다)에서 계몽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고 충분히 기술되었을 경우 10점 (주요개념이 빠진 경우 2점씩 감점) - 논리적 연결 및 표현의 적합성 5점 	25
3-3	<p>위의 문제에서 제시문 (나)와 (다)의 입장을 확인한 후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를 비판하는 내용을 평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나)의 입장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분명하고 충분히 기술되었을 경우 15점 (주요개념이 빠진 경우 2점씩 감점) - 논리적 연결 및 표현의 적합성 5점 	20

000

예시답안

1. 모든 이해는 선입견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편견이 없는 순수한 중립적 관찰에 입각한 과학의 객관적 지식은 불가능하며, 객관적 지식의 강조는 눈앞에 있는 것만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변화를 싫어하고 현상유지에 몰두하게 한다.
2. (나)는 이해의 선입견을 중시하기 때문에 전통과 권위를 배척하는 계몽주의를 비판하지만 (다)는 전통과 권위에 대적하는 이성의 비판능력을 긍정한다는 점에서 계몽주의를 옹호한다.
3. (나)는 전통과 권위를 절대화함으로써 비판적 성찰의 힘을 약화시켜 은연중에 지배이익을 대변하는 보수적인 권위주의의 형태를 띌 수 있다.

[문제 4]

출제 의도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과목의 ‘음운의 체계’와 ‘음운의 변동’에 나오는 기본용어인 ‘음운’, ‘음운자질’ 및 ‘음절’, 그리고 ‘음운변동’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함. 단순한 암기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전에 응용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함.

문항 해설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과목의 ‘음운의 체계’와 ‘음운의 변동’에 나오는 기본용어인 ‘음운’, ‘음운자질’ 및 ‘음절’, 그리고 ‘음운변동’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고자 한다. 음운변화를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수준을 넘어 주어진 변화가 음운, 음운자질 및 음절상에서 어떤 단위의 변화인지를 알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채점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4 - 1	각 문항에서 선택형이 맞으면 5점, 틀리면 0점	15
4 - 2 4 - 3	각 문항에서 이유 설명이 우수하면 15점 각 문항에서 이유 설명이 보통이면 10점 각 문항에서 이유 설명이 미흡하면 0-5점	45

문항 해설

- 1-1. ② 음운자질, 왜냐하면 ‘ㄱ’이 ‘올림성’과 ‘비음성’이 있는 ‘ㄹ’을 닮아 ‘ㅇ’으로 바뀌는 음운자질상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 1-2. ① 음운, 왜냐하면 음운 ‘ㄹ’을 ‘ㄴ’이나 ‘ㄷ’ 앞에서 탈락시키는 음운상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 1-3. ③ 음절, 왜냐하면 각 단어 내에서 각 음절의 순서를 역순으로 하는 음절상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문제 5]

출제 의도

-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학습한 국어 및 일반사회 교과목의 내용을 바탕으로 AAT라는 시험 형식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출제하였음.
- 국민소득의 크기가 결정되는 원리를 설명하는 글을 읽고 정부의 지출과 소득 재분배 정책이 낳는 효과를 개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문항해설

- 문항 1은 국민소득의 개념, 소득과 소비 사이의 관계, 소비성향의 개념, 수요가 국민소득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는 원리에 대한 제시문의 설명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과, 이에 기초하여 정부 지출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성향과 연관시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설계하였음. 즉 제시문 두 번째 단락의 예를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정부 지출의 증가 폭과 이로 인한 국민소득의 증가 폭 사이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비성향이 미치는 영향을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
- 문항 2는 소비성향과 소득 수준의 관계에 대한 제시문의 설명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과, 이에 기초하여 소득 재분배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성향과 연관시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설계하였음. 즉 제시문 세 번째 단락의 예를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수요 사이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

채점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5-1	(가)에 10점 배점 (나)에 10점 배점	20
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지출이 변화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분배만으로 수요를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제시문의 내용을 논리적 완결성이 있게 서술하면 최대 40점으로 처리하되 표현의 완성도에 따라 15점까지 감점할 수 있음. -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언급은 하되 서술이 논리적인 완결성이 없는 경우 최대 20점으로 처리하되 표현의 완성도에 따라 15점까지 감점할 수 있음. - <보기2>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근거를 제시문과 연결시켜 제시하지 못하면 0점으로 처리함. 제시문과 <보기2>의 맥락으로부터 벗어나 정부 지출이나 정부 개입의 정당성 여부에 초점을 맞춘 답안은 0점으로 처리함. 정답은 정부 지출 확대만이 국민소득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진술에 대한 비판이어야 함. 	40

예시답안

3-1. (ㄱ) 더 크다는, (ㄴ) 더욱 확대되는

3-2. ㉠이 타당하다면 정부 지출을 늘리지 않고 순수한 재분배만으로도 수요가 변동해 국민소득의 증가가 가능하므로 <보기>의 주장은 옳지 않다.

[문제 6]

출제 의도

사이버공간의 익명성 등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헌법상 익명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와 그 한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함. 특히 본인확인제(이른바 ‘인터넷실명제’)의 의미와 관련하여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결합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현안으로 등장한 ‘게임 셋다운제’에 그 논의를 응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함.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제시물을 이해하는 능력과 그를 바탕으로 현대 정보통신사회의 문제점을 통합해서 이해하는 사고력과 추론능력을 측정하고자 함.

문항해설

- 제시문 6의 (가), (나)는 사이버 공간에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받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의 보호와 그 한계라는 쟁점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제시한 것임. 설문은 양쪽의 입장을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나아가 합리적으로 도출한 결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자 함.
- 세부적으로 6-1은 실제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제시하고, 본인확인제(이른바 인터넷실명제)와 관련된 실제 사례에서의 응용능력과 이해도를 묻고자 함. 또 6-2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산업법상 ‘게임셋다운제’가 관련 법제도의 전체적인 면에서 본인확인제(이른바 인터넷실명제)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게임 셋다운제’에 대한 이해도를 고양하고 그 찬반론에 대한 합리적인 논거의 도출과 적절한 표현을 측정하고자 함.

채점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6-1	(1) 채점기준 -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표현하면 각각 10점 부여함 - 유사한 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부분 점수 5점 부여함 - 정확한 답과 관련성의 정도에 따라서 1~4점까지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함. (2) 유의점 - (ㄱ)과 (ㄴ)을 바꾸어 서술한 답안은 0점으로 처리함 - 항목에 대한 답을 누락한 경우 0점으로 처리함.	20
6-2	(1) 채점기준 - ‘게임 셋다운제’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의 논거를 제시문에서 찾아 논리적으로 충실히 서술하였는지 여부 및 문장 완성도와 표현의 적절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함. - 논거에 대한 제시문 선택과 관련하여 (가)와 (나) 중 정확히 제시하면 각각 5점을 부여함. - 논거의 핵심을 100자 이내로 제시문에서 적절하게 표현하여 서술하면 20점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함 - 유사한 취지의 논거를 제시한 경우 ±5점의 범위내에서 차등적으로 부여함 (2) 유의점 - ‘게임 셋다운제’에 대한 찬반론의 논거를 제시문에서 찾지 않고, 6-2 <보기>에서의 표현 그대로 인용하여 서술하거나, 상식적 차원의 답변만으로 이루어졌거나, 같은 표현을 중언하거나 부언하는 답안 등에 대해서는 그 표현의 적절성과 충실성에 비추어 차등적으로 감점 처리함. - 논거를 찾는 과정에서 제시문 중 (가)와 (나)를 반대로 제시하면 0점 부여함	50

예시답안

6-1.

- (ㄱ) 익명표현의 자유
- (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6-2.

(1) 찬성론의 논거

: (나) / 섯다운제는 개인정보가 남용될 위험성이 있을 뿐 아니라, 헌법으로 보장된 개인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2) 반대론의 논거

: (가) / 섯다운제는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한 것일 뿐 개인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 청소년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므로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